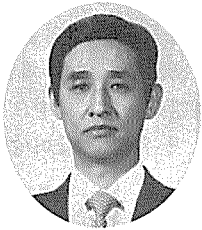


油種間 가격구조 단계적으로 개선 崔昌洛 장관 업무보고에서 밝혀



全斗煥대통령은 지난 2월 6일 崔昌洛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崔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올해에는 국제원유가격의 하락이 전망되는 등 세계에너지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경제를 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에너지源別·源間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수준을 국제수준으로 접근시키며, 원가보상원칙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격수준을 책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과 소비절약효과, 그리고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앞으로 에너지가격체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고 『다음번 국내油價조정때 B-C油, 휘발

유, LPG, 灯油, 輕油 등을 대상으로 유종간의 가격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의 용도별 가격체제와 LNG 국내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등 가스가격체제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석유의 안정확보를 위해 국제석유시황의 약세를 최대한 활용하여 현물시장으로부터의 원유도입비중을 작년의 58%에서 올해에는 70%로 확대하고, 導人先도 지난해 수준에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석유비축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기존비축은 경제적 활용을 도모하고, LPG 비축기지 건설계획의 조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또한 가스수요증가에 따른 보급체제를 갖추어 오는 6월에 LNG 5만7천톤을 도입, 11월부터 발전용으로 공급을 개시하고, 오는 88년까지 수도권 도시가스 환상배관망을 건설하며, 도시가스공급 가구를 올해에 63만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했다.

89년에 완공시키기로 했다.

油開公이 지난 2월 12일 崔昌洛동자부장관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 의하면, 이에 필요한 2백12억원의 재원은 油開公에서 51%, 極東石油에서 49%등 공동으로 출자, 추진키로 했다.

湖油의 LPG생산시설 경제장관회의서 도입허용

경제장관회의는 지난 1월 30일 湖南精油가 신청한 LPG(액화석유가스) 생산시설도입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注油所 허가 규제완화 업소간거리도 5백m로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도심반경 5km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지역에 대해 주유소허가규제를 풀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주유소간 직선거리 1km 이내에는 다른 주유소가 들어설 수 없게 되어 있던 제한규정을 차량통행거리 5백m 이내로 바꾸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자동차는 급증하고 있으나, 주유소 숫자는 오히려 줄어 운전자들의 불편이 컸고, 기존주유소의 프리미엄이 수억대로 치솟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내 차량대수는 지난 80년의 20만대에서 요즘 45만대로 늘었으나, 주유소는 지난 80년의 2백 69개소에서 2월 현재 2백 66개소로 3개소가 오히려 줄었다.

유탄유부문서 기술 제휴 美昌石油, 日三菱石油와

美昌石油工業(대표 劉龍述)은 지난 1월 31일 日本의 三菱石油

瑞山-天安 송유관 건설 油開公·極東 공동출자

韓國石油開發公社는 瑞山-天安간 1백 13km에 이르는 송유관을 건설키로 하고 올해안에 조사설계를 끝내고, 87년에 착공하여 오는

와 고급유허유 기술제휴계약을 맺었다.

제휴내용은 ① 三菱石油는 美昌 석유에 대해 자동차·공업용 고급유허유 제조기술을 제공하고 유허유 유도 공급하며, ② 美昌石油는 유허유를 조합하여 三菱石油상표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美昌石油는 지금까지 주로 전기 절연유와 합성고무배합유를 생산해

온 유허유메이커로 연간판매량은 4 만kl로 국내 시장세어는 약 13%로 제 4위를 기록하고 있다.

美昌石油는 오는 3월부터 釜山 공장에서 생산에 들어가 4월부터 판매를 개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유허유시장규모는 연간 20만kl(84년 실적)으로 연간 7% 정도씩 성장되고 있다.

대어 3 등상 : 송근찬(경비실)

장려상 : 박상용(환경관리과)

油公 사내 금연운동 확대 금연 비디오도 상영

油公 본사는 알뜰경영운동의 실천 및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3일부터 15일간 12층 시청각실에서 『당신도 담배를 끊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금연 비디오를 방영, 250여명의 관심있는 사원들이 시청하였다.

본 금연비디오 시청후, 어떤 부서에서는 개인 책상 위에 재떨이가 자취를 감추는 등 금연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본 금연운동은 전사적으로 확대되어, 각 사업장에서도 2~3월중에 금연 프로그램이 방영될 예정이다.

油公 판매원 기술세미나 옛소 신제품의 판매 위해

油公은 대리점 유허유판매요원을 대상으로 옛소(ESSO) 유허유 기술세미나를 지난 2월 14일과 21일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하였다.

油公의 유허유 상표변경에 따른 소비자의 충격흡수를 완화하고 옛소 신제품의 국내 조기 판매 정착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공 유허유 판매정책, 상표변경과 판매 방향, 유허유개론 등의 강의와 더불어 최근 유허유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대처방안과 대리점의 예로사항에 대해 중점도의를 가져 당사과 대리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나프타가격 또 13.25% 인하 ℓ당 168원 42전에서 146원 10전으로

올들어 나프타가격이 계속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

대한석유협회는 나프타가격의 국제가격 연동제에 따라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나프타가격을 반영, 국내 나프타 공급가격을 지난 1월 4.01% 인하한데 이어 2월 1일부터 또 다시 13.25% 인하, 이를 실수요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내 나프타가격은 공장도가격 기준으로 종전의 ℓ당 153

원 11전에서 132원 82전으로 20원 29전이 내리고, 세포함가격 기준으로는 종전의 ℓ당 168원 42전에서 146원 10전으로 22원 32전이 내렸다.

지난 1월중 국제나프타평균 가격은 日本 C&F(운임 포함조건) 가격기준으로 톤당 210달러 50센트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월의 242달러 56센트보다 32달러 6센트가 내린 것이다.

油公 CWF 실험실 개관 기술지원연구소내

油公은 지난 1월 24일 공장내 기술지원연구소에서 徐孝重 부사장과 尹大郁 공장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CWF 실험실 개관식을 가졌다.

본 실험실은 CWF생산과 기술에 관한 실험분석업무, 기술지원업무, R&D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油公, 뉘시동호회 출조 대어상에 김동성 사우

油公 공장 뉘시동호회는 지난 1월 19일 경북 월성군 양남면 읍천 방파제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조회겸 회장에 뉘시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 대어상 어종은 망상어로 수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대어 1 등상 : 김동성(창고과)

대어 2 등상 : 김중호(생산관리과)

油公 건강체조 실시

2월 3일부터 하루 두차례

油公 본사는 임직원들의 체력 향상 및 명량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하루에 두 차례씩 사무실 건강체조를 실시하고 있다.

1월 31일 각 부서 시범조의 예행연습에 이어, 2월 3일부터 오전 8시 50분과 오후 3시, 사내 방송의 구령에 따라 사무실의 빈 공간을 이용, 각 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짧은 시간내에 전신을 풀어주는 이 체조의 실시로 바쁜 생활에 쫓기는 사원들의 건강관리 뿐만아니라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업무능률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油公 공장 우수제안 포상

안타분임조 등 13건

油公 울산공장은 지난 2월 5일 후생관 대강의실에서 尹大郁 공장장을 비롯한 150여명의 관련 종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중 제출된 우수제안 13건에 대한 포상식을 갖고 등급별 포상금을 수여하였다.

이날 포상을 받은 우수 제안은 분임조제안, 공동제안 및 개인제안 등 총 13건이며, 이들 13건의 제안실시로 16억 9천 7백 78만원의 원가절감효과 및 작업능률향상이 기대된다. 포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분임조제안

3 급 : 안타분임조(운영부)

4 급 : 쪽집계분임조(2 건), 오투기분임조(이상 정비부)

6 급 : 제일분임조(석유화학 생산부), 왕바우분임조(2 건), 상록수분임조, 꿀벌분임조(이상 석유정제부), 땅벌분임조(실험실)

▲ 공동제안

3 급 : 최성호의 1명(정비부)

5 급 : 서정태의 1명(석유화학 생산부)

▲ 개인제안

4 급 : 이재식(안전환경관리실)

湖油, 日語 고급과정개강

9명대상 6개월간

湖油는 기업의 국제화 추세에 대비하고 사원의 어학능력 다양화 및 자기개발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내 일본어교육 고급과정을 지난 2월 3일 본사 제 2연수실에서 개강하였다.

이번 과정은 기초반 수료자 9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생활회화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게 되며 교육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초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앞으로 정규적으로 본 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湖油, 기술연구소 설립

88년까지 大德으로 이전

湖油는 지난 1월 6일 許東秀 전 무이사를 연구소장으로 湖南精油 기술연구를 설립하였다.

본 연구소는 85년 10월에 수립한 장기경영계획에서 설립이 중점 사업으로 확정되고, 마스터 플랜에 따른 세부계획의 수립·추진으로 금년초

에 설립을 보게된 것이다.

연구소의 1 단계 계획으로 여천 공장내 기존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주축으로 공정연구실, 고분자 연구실, 제품 및 신기술 연구실, 그리고 기기 및 재료 연구실의 4 개 연구실을 구성하였고, 앞으로 기존 기술개발 업무의 강화, 고분자 등 신규 연구, 그리고 연구 인력의 확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 2 단계로 본 기술연구소 확충을 위한 마스터 플랜에 따라 1988년까지 충청남도 대덕 연구단지내 약 50억원을 투자하여 독립연구소를 건립, 기존 연구소를 이전하여 대체에너지, 윤활유 및 신소재 등 첨단 기술분야의 연구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湖油, 油化사업에 진출

폴리프로필렌 공장 건설

湖油는 지난 18일 연간 7만 7천톤 규모의 폴리프로필렌공장 건설을 위한 기술계약을 美國 유니온카바이드社와 체결하였다.

총 4 천 7 백만달러의 예산으로 오는 4 월 공장건설에 착수, 87년부터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시설보다 시설투자비와 동력비를 40% 이상 줄일 수 있는데다 강도가 높은 특수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어 큰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된다.

湖油, 분임조 경진대회

최우수상 햇불B분임조

湖油 여천공장은 지난 2월 12일

공장 경영층 및 많은 관계 사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5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 분임조 결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공장 업무의 각 분야에서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51개 분임조 가운데 지난 1월 해당 부에서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7개 분임조의 발표와 질문이 있

었다.

본선대회 및 예선대회의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상금 35만원과 상패, 우수상에는 상금 25만원과 상패, 노력상, 장려상에는 각각 20만원과 15만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참가 분임조에는 5만원의 상금이 전달되었다.

이날 대회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우수상	햇불B 분임조	생산부 생산1, 2과	Crude Feed의 다변화에 따른 Unit 운전조건의 표준화
우수상	반딧불분임조	기술부 시험과	Blending 시험의 개선 및 표준화
	피니언분임조	정비부 기계과	Mechanical Seal Lapping 방법의 표준화 및 시간단축
노력상	청송 분임조	생산부 생산3과	Crude O/H Compressor Suction과 Suction K/O Drum의 응축나프타 회수
	황소 분임조	정비부 정비과	Hydro Test의 시간을 줄이자
	무지개분임조	생산부 생산3과	NKHT Feed Surge Drum 온도증가로 생산 원가 절감
	B 분임조	생산부 생산3과	순환압축기의 증기절감

湖油, 전자이론 교육 전자식계기 적응기 위해

湖油 여천공장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1개월간 공장 정비부 계기과, 분석계기과, 전기과, 기계과 요원 26명을 대상으로 일반전자이론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자 산업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공장에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최신식 공업기계 및 분석계기의 사용법과 정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 이번 교육은 순천 공업전문대학에서 초빙한 3명의 해당분야 교수의 강의로 진행되었는데 기초 전자이론, 컴퓨터이론 및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론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京仁, 제 5 소구 개발참여 油開公 · 日本石油와 함께

京仁에너지는 인도네시아 Nauka 광구에 이어 국내 대륙봉 韓 · 日 공동개발구역 제 5 소구 개발에 참여키로 하였다.

이 광구는 제주도 남방 220km에 위치한 해상광구로서 79년부터 84년까지 물리탐사 및 2개정의 탐사 시추를 끝냈는데, 가스보다는 석유의 부존가능성이 비교적 큰 광구로 현재 韓國측에서는 경인 및 油開公과 日本측에서는 日本석유가 참여를 결정하였다. 이 광구의 개발은 금년 5월에 1개공을 시추할 예정이다.

京仁, 李이사 해외연수 기술협의회후 귀국

京仁에너지 정유담당 부공장장인 李英吉이사는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실시한 USC EXECUTIVE PROGRAM WINTER SESSION에 참가하고, PACIFIC PUMP사, UNION OIL사, GLITSCH사 등을 방문하여 정유공장 관련 기술협의 및 자료 수집후 2월 17일 귀국하였다.

京仁, 새마을운동 강연회 공장새마을지도자등 참가

京仁에너지 인천공장은 지난 2월 4일 인근 50여개 기업체 새마을 지도자와 각부의 관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새마을운동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사인 최돈화 교수(경제학 박사)는 공장새마을운동의 현재의 좌표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여 참석한 모두에게 공감을 주었다.

京仁, 불우사우 돕기 입원비 모금 전달

京仁에너지 임직원 일동은 연말불우사우돕기 운동을 전개하여 모금한 백만원을 1월 24일 이보열 사우에 전달하였다.

이보열사우는 京仁에너지 본사 정문 경비원으로 근무중 폐동맥 개존증(심장병의 일종)으로 국립의료원

에 입원 수술, 치료중인데 파중한 병원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전사적으로 불우 사우돕기운동을 전개하여 모금한 백 만원을 전달한 것이다.

또한 정유공장 정비부 직원들은 1월 14일 어려운 생활속에서 지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퇴직사우 이정재(83년 퇴직)씨와 불의의 사고로 입원하게 된 박종영(정비부) 사우에게 모금으로 마련한 90여만원을 나누어 주고 위로하였다.

정비부에서 소리없이 모금을 하였는데 총무부의 운전기사 직원들도 합세하여 정초에 훈훈한 사랑을 한껏 느끼게 하였다.

極東, 분임조 발표대회 「개미분임조」 1 등 차지

極東석유 부산공장은 지난 1월 24日 工場세마을 분임조 발표대회를 가졌다.

17개 부서가 참가한 이날 주요 발표內容으로는 物資 및 에너지절약, 品質管理, 새마을운동 및 당해 부서 중요업무에 관한 것이었으며, 심사결과 입상자에게는 상금이 수여됐다.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등 근면상 : 「개미」분임조(생산부 생산1과)

2 등 자주상 : 「반딧불」분임조

(동력부 동력과)

3 등 협조상 : 「윤샘」분임조(유회

유부 생산2과)

京仁산악회 치악산 등반 올해의 무사고를 기원

京仁에너지 산악회는 지난 2월 16일 강원 원주에 위치한 치악산으로 정기등반을 가졌다. 비로봉 정상까지의 산행을 무사히 마친후 86년을 맞이하여 1년동안 경인 산악회원의 무사고를 기원하는 산신제를 거행후 하산, 또한 이날 참가자 전원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 海外石油產業短信 □

경제변화로 줄어드는 獨立系 석유회사들

전세계 石油産業의 재구성 추세는 대규모 회사의 내부적 전략에서 실제적인 합병으로 초점을 바꾸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獨立系의 석유회사, 天然가스會社, 油田개발 지원회사의 수를 줄여가고 있다. 현재 기본적인 경제의 변화는 초기에 발생했던 적대적 투쟁보다는 획득과 합병이 합의되는 쪽으로 차츰 기울어져 가고 있다. 메이저들도 여전히 자산의 구매와 매각에 연루되어 있지만 인수극의 목표가 되지는 않고 있다.

20개 이상의 독립계 生産會社들이 하락하는 석유가격과 자산증식에 있어서 증대되는 어려움에 당면해서 자산을 매각하고 있다. 기타 많은 獨立系 회사들은 생존전략으로서 기업 인수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파잉능력과 새로운 생산수급패턴은 계속 獨立系 정유공장과 판매회사의 합리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소규모이든 대규모이든 天然가스會社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가스시장에 대응하여 새로운 제휴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과 침울한 시추전망은 油田개발 지원회사들로 하여금 많은 作業會社들을 매각하거나 합병하거나 축소하거나 재구성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석유 및 가스의 낮은 가격은 매장량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한편 獨立系 회사들로 하여금 생산량을 보충하기

위한 새로운 탐사에 투자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 결과로서의 합병은 다수의 美國 獨立會社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한 北海,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獨立系 회사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유류회사들은 모든 獨立系 會社들을 송두리채 집어삼킬지도 모를 상황에 있다. 그러나 소수의 北海 獨立會社들은 앞으로 1, 2년간 견디리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벨지움의 Petrofina에 의한 Charterhouse의 인수나 Enterprise Oil(前 British Gas의 자회사)에 의한 Saxon Oil의 인수와 같은 최근의 합병은 다가올 추세의 신호를 보인다.

이탈리아의 Agip, 프랑스의 Elf, CFP, 독일의 Deminex, Britoil(前 BNOOC의 자회사), 호주의 BHP 등이 주요 구매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정되는 바로는 2,000개 이상의 美國 獨立會社들이 이미 매각되거나, 합병되거나 혹은 지난 2년동안 활동을 벌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남아있는 6,000개 이상의 회사들이 금년에 美國 試錐井의 90%를 시추하게 될 것 같다. 獨立會社들은 또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는 캐나다에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PIW, 1986. 1. 27)